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8~2017.3.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중생의 삶과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위대한 스승 청화 큰 스님

유철주 지음 | 상상출판 펴냄 | 1만 6천원



우리시대 큰 선지식(善知識)으로 존경받는 청화 큰 스님이 출재가 제자 20명의 회고담으로 다시 우리곁에 왔다. 불교계 기자 출신의 인터뷰 전문 작가인 유철주 선 전문지 〈고경〉 편집장이 〈위대한 스승 청화 큰스님〉을 펴냈다.

이번 책에서는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과 같은 직계 상좌는 물론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 등 불교계 리더들의 말을 통해 생전 청화 큰스님과의 일화를 정리했다. 또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해숙 선생님과 사촌동생이자 화가인 강행원 화백 등 6명의 재가 제자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청화 큰스님<오른쪽 사진>은 '우리시대의 마지막 선지식, 도인'으로 추앙받는 어른이다. 청화사상연구회 박선자 회장은 "예전에 제방서 '진짜 중을 보고 싶으면 전라도 곡성 태안사에 가서 청화 스님을 찾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평생 수행에만 매진한 청정한 선지식 이다.

큰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평생 동안 방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하루 한 끼만을 먹는 일종식(一種食), 수십 년간 이어진 깊은 산중서의 토굴 정진으로 일관한 청화 큰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수많은 대중들을 제접했다.

벽산문도회 문장 용타 스님은 청화 스님을 이렇게 소개했다. "큰스님은 하루 한 끼의 공양(一種食)과 청빈,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일생을 두고 실천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혹독하리만큼 철저한 큰스님은 사상적으로는 원효 성사에 닿아 있습니다. 큰스님의 사상은 원효 성사의 화쟁 사상과 맥을 같이한 통불교(統佛敎)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법은 대해'라는 말의 온전한 실현입니다"고 회고했다.

〈위대한 스승 청화 큰스님〉서는 이런 청화 큰스님의 생전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2005년 소설 〈청화 큰스님〉을 읽고 큰스님을 알게 됐다. 그 후 자연스럽게 청화 큰스님의 법어집을 탐독 했고 이제야 큰스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책을 통해서 큰스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책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청화 큰스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칭송했다. 또한 "살아 있는 부처님을 모셨다"고도 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부처님과 청화 큰스님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한다.



출재가 제자 20명 회고로 청화 스님 조명
장자불와, 일종식, 청빈 등 일생동안 실천
"실제로 부처님 만났다" 후학들 한 목소리

"제가 부처님한테 닮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버림' '위대한 정진' '위대한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리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 정진 한 뒤 도를 깨달아서 중생들을 위해 살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화 큰스님께 부처님의 이 위대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부처님과 거의 같아요."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청화 큰스님을 '불교 덕후'라고 했다. "제가 볼 때 노스님은 요즘 흔히 말하는 '덕후'입니다. 어떤 분야에 몰두해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덕후'에 있잖아요. 노스님은 다른 덕후가 아니라 '부처님 덕후' '불교 덕후' '수행 덕후'입니다. 부처님과 불교를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요즘 스님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직업적으로 부처님을 좋아한다면, 청화 노스님은 그냥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은사스님이 노스님의 이런 면을 많이 닮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노스님과 은사스님의 '덕후적 본능'을 닮고 싶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존경해서 부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청화의 아난'으로 불린 김영동 조선대 명예교수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같은 스승이 바로 청화 큰스님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큰스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뒤 인간이 구축해 놓은 모든 문화형태 특히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정신문화를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철저한 체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큰스님께서 거의 20년 이상을 홀로 수행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큰스님께서 수행처를 자주 옮긴 것은 당신의 당호 무주(無住)처럼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시면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면서까지 처절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언설로 표현이 불가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진리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청화 큰스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청화 큰스님〉을 쓴 소설가 남지심 선생님은 청화 큰스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고 또 '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도인'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 큰스님을 친견했을 때 정말 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시인이 이세상 소풍 떠날때 남긴 선물은?… 평화, 안정, 안심

노을빛이 물든 강물

서성림 유고시집 | 천년의 시작 펴냄 | 9천원



가족 뒷바라지에 늘 종종 걸음인 일상부터, 손주들 대할 때면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 등은 우리 평범한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이 시집을 쓴 서성림 시인도 그랬다. 여기에 서 시인은 하나 더 있었다. 내면 깊이 간직한 소녀다운 순수함. 이런 감성들을 서 시인은 씨줄과 날줄로 꿰어 시(詩)라는 옷을 지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없다. 지난해 지병으로 작고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고운 말들이 시어로 온전히 남아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서 시인의 시를 진지하게 읽어보지 못한 모양이다. 장녀인 정주은씨는 이번 시집의 머리말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이렇게 고백한다. "그동안 번잡한 일상에 치여 마주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시들을 이제 당신 떠나신 세상에 덩그러니 앉아 읽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마주할 수 없지만, 시를 통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미처 몰랐던 당신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남겨주신 이 시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칠 때 꺼내 읽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크나큰 위로이자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청계산 기슭 남보다 먼저 피어나/고요한 천지에 함박웃음으로/꽃잎 펼치고/까만 꽃술 자랑하며/하늘하늘 행인을 유혹한다/'나 예쁘지 않아요? 쉬었다 가세요-' /간드러진 콧소리에/발길 멈추어/들여다보고 만져보고/철없이 아름답던/먼 추억 그리며/마냥 서서 바라본다."

– 〈진달래〉中에서

지난해에 작고한 서성림 시인의 유고시집 〈노을빛이 물든 강물〉이 출간됐다. 이 시집은 우리들에게 평화, 안정과 그리고 안심을 일러준다. 아무 곳이나 펼치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읽어보면 시가 어려워야 한다는 것도 꾸미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시가 거창하게 인류와 사회에다 대고 외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집의 해설을 한 김용택 시인은 서 시인의 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한다. "서 시인의 시를 읽고 나면 우리들의 어지러운 삶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으라는 말을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해놓는다"고. 해설을 듣고 보니 이 시가 그렇다.

"또닥또닥 잠을 깨운다/무슨일이 있으려나/비 때문에 잘못 없으려나/출근길 막혀/지각 사태 나면 어쩌지/아침 까치 깍깍 울어대더니/그래도 좋은일이 있겠지"

– 〈새벽 빗소리〉 中에서

김용택 시인은 "그렇다고 이 시집의 시들이 삶의 안정과 평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번뜩이는 통찰위에 번뜩이는 시적 표현을 해내기도 한다"며 "떨어지는 꽃잎은/떨어져 누운 꽃잎보다 아름답다"라는 삶의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분석한다. 즉 안정된 삶의 바탕위에서 바라보는 삶의 찬란을 시인은 놓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또한 살아 생동하는 삶의 진실 앞에서 시인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삶의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하다.

그의 시에서 겨울 잔디밭에 떨어진 잔잔한 햇살을 보았고, 바람 부는 강변의 억새들을 보았다. 잔물결을 보았고, 텅 빈 산을 보았다. 삶이 어찌 애잔하지 않겠는가. 삶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삶이 어찌 그립고, 또 그립지 않겠는가. 이 시집은 한 사람의 생이다. 그 생을 한군데 이렇게 잔잔하게 모았다. 이 또한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 삶과 죽음이 따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 있는가. 우리는 한 사람의 삶 앞에 기쁘고 슬프고 또 아름다운 인연을 간직하게 된다.

참 다행이다. 그는 갔지만 그의 영롱하고 위안이 되는 시어와 시심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서 말이다. 물론 시를 읽으면 읽을 수록 더욱 더 그가 그리울 수 있겠지만, 그는 우리들에게 시를 통해 영원히 살아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떠났다. 시가 바로 서성림이고, 서 시인이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서성림**은?
1951년 서울서 출생한 서성림 시인은, 1975년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단문학〉으로 등단했다. 前 한국문인협회 회원, 前 학여울문학회 회원, 前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前 이대문인협회 회원을 역임했고, 2016년 작고했다. 시집으로는 〈초여름의 향기〉 〈무지갯빛 바람소리〉가 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진액 하수오추출액 100%
하수오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